양현종의 선택은?

빅리그 도전 끝내고 'FA'신분으로 KBO리그 유턴

원소속팀 KIA와 '우선협상'…타 구단 계약 가능성도

큰 꿈을 안고 도전에 나섰던 양현종(33)이 5일 귀국했다.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한 양현종은 1년 만에 귀국해 원소속팀 KIA 타이거즈와 우선 협상 테이블을 차릴 예정이다.

양현종은 KIA와 계약할 가능성이 크지만, 타 구단과 사인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양현종은 텍사스 산하 마이너리그 라운드 록과 계약이 완전히 종료돼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KBO리그 10개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양현종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최근 10년 동안 해외 복귀파 주요 선수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양현종이 어느 수준의 계약을 맺을지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 원소속팀은 선수의 기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역대 최고 수준의 대우를 보장했다.

유턴파 선수들은 대부분 계약 규모에서 신기록을 작성했다.

2012년 일본에서 돌아온 김태균은 당시 KBO리그 최고 연봉 기록(15억원)을 세우며 원소속팀 한화 이글스에 복귀했고, 2017년 미국에서 돌아온 이대호도 롯데 자이언츠와 역대 최고액(4년 총액 150억원) 기록을 깼다.

SSG 랜더스도 지명권을 가진 추신수를 영입하기 위해 역대 KBO리그 최고 연봉(27억원)을 보장했다. 추신수는 이중 10억원을 기부했다.

원소속팀은 해당 선수의 한국 복귀를 해외 진출 실패가 아닌 금의환향으로 포장하기 위해 충분한 보상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선수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원소속팀이 아닌 타 구단과 계약한 특수한 경우도 있다.

2018년 김현수는 친정팀 두산 베어스가 아닌 경쟁 구단 LG 트윈스를 택했다. 당시 두산은 프랜차이즈 스타 김현수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룹 사정상 몸값을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김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LG와 4년 총액 115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황재균도 원소속팀 롯데 대신 kt wiz를 택했다. 이름값 있는 스타플레이어가 필요했던 신생팀 kt는 황재균에게 4년 총액 88억원을 안기며 영입에 성공했다.

원소속팀은 선수의 충성심과 팬심에만 기댈 수 없다.

유턴파 선수들의 복귀 성적은 나쁘지 않다. 특히 타자의 경우 만 35세 이하의 나이로 돌아왔을 때는 대부분 예전의 기량을 펼치며 기대에 걸맞은 성적을 냈다.

이범호와 김태균, 이승엽, 이대호, 박병호, 김현수, 황재균은 모두 복귀 첫해 타율 0.290 이상, 15홈런 이상, 75타점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투수들은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성적을 냈다. 오승환은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복귀 첫해 3승 2패 18세이브 평균자책점 2.64를 기록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오승환은 올해도 37세이브를 올리며 삼성의 뒷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

윤석민은 많지 않은 나이에 복귀해 복귀 첫해 기대 수준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듬해부터 잦은 부상과 부진 속에 고꾸라졌다.

김병현도 기대만큼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양현종은 몸 상태가 좋고 미국 무대에서도 나름대로 위력적인 공을 던졌다. MLB 첫 3경기까지는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선발 로테이션에 들기도 했다.

여전히 KBO리그에서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KIA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계약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뉴스

▶2010년 이후 주요 해외 유턴파 선수

연도	선수(당시나이)	복귀팀	계약 내용	첫해 성적
2011	이범호(30)	KIA	1년총액 12억원	타율 0.302 17홈런·77타점
2012	박찬호(39)	한화	1년 총액 6억원(기부)	5승10패 ERA 5.06
2012	김병현(33)	넥센	1년 총액 16억원	3승8패 3홀드 ERA5.66
2012	김태균(30)	한화	연봉 15억원	타율 0.363 16홈런 80타점
2012	이승엽(36)	삼성	1년 총액 11억원	타율 0.307 21홈런 85타점
2014	임창용(38)	삼성	연봉 5억원	5승4패31S ERA 5.84
2015	윤석민(29)	KIA	4년 총액 90억원	2승6패 30S ERA 2.96
2017	이대호(35)	롯데	4년 총액 150억원	타율 0.320 34홈런 111타점
2018	박병호(32)	넥센	연봉 15억원	타율 0.345 43홈런 112타점
2018	김현수(30)	LG	4년 총액 115억원	타율 0.362 20홈런 101타점
2018	황재균(31)	kt	4년 총액 88억원	타율 0.296 25홈런 88타점
2020	오승환(38)	삼성	연봉12억원	3승2패18S ERA 2.64
2021	추신수(39)	SSG	연봉 27억원 (10억 기부)	진행중

※오승환은 2019년 8월 잔여 연봉 6억원에 계약 후 2020시즌 복귀

2021 JK상조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대성초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대성초, JK상조배 초등 야구 우승

대성초 송호진, 최우수선수상

대성초가 2021 JK상조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성초는 지난 1일 광산구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수창초를 8대2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대회 첫 경기에서 서석초를 6대5, 1점차로 제압한 대성초는 준결승전에서 서림초를 10대7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선수단 안전을 위해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최우수선수에는 대성초 송호진이 선정됐고, 대성초 박승민과 서림초 송시헌은 각각 우수투수상과 타격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대성초 정미숙 교장은 지도상을, 대성초 신경호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다. /박희중 기자

광산구청장배 생활체육 태권도 대회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광산구태권도협회, 오는 13일부터 4일간 온라인 진행

광주 광산구태권도협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광산구 태권도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2021 광산구청장배 온라인 생활체육 태권도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종목은 공인 품새, 스피드 발차기, 스피드 줄넘기, 단체 줄넘기 등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태권도 동호인과 체육인들에게 활력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대면이 필요한 겨루기 대신 참가팀들이 유급자 품새(태극 1장-8장)와 유품자 품새(고려, 금강, 태백)를 담은 동영상을 촬영·제출하고 이를 심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산구태권도협회는 8일까지 참가팀 접수와 영상물 제출을 진행한다. 5일 현재 총 100여 태권도 체육관에서 1천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열띤 분위기를 반영했다.

광산구태권도협회는 앞으로 제출된 영상물에 대해 일정에 맞춰 3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채점한 결과를 종합 점수로 계산해 1-3위까지 선정하고, 오는 22일 그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동원〈사진〉 광산구태권도협회장은 "코로나19로 태권도장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태권도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를 이겨내고 있는 동호인과 체육인들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참가자들 모두가 그동안 땀 흘려 수련해온 태권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일 전남체고에서 열린 102회 전국체전 전남체고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전을 당부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웅비하는 전남체육 "희망을 쏴라"

전남도체육회, 102회 전국체전 결단식서 선전 당부

전남체육이 2년 만에 경북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출격 준비를 마쳤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1일 전남체고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체고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전남체육의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당초 결단식을 따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전남체육의 산실인 전남체고등 선수들만 대표로 격려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순연된 전국체전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며 역대 대회 최초로 고등부만 축소 개최한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체전에 36개 종목, 709명의 선수단(임원 257명, 선수 452명)이 출전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우여곡절 끝에 열린 대회가 축소개최 돼 아쉬움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고생한 선수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든다"며 "2년 동안 누구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대회를 위해 고생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손 인사하는 '캡틴'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 4차전 출전을 위해 5일 입국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7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 12일 이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예선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2021 추계 전국남여대학유도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세한대 유도부. 〈전남도체육회 제공〉

세한대 김찬, 추계유도연맹전 '金'

세한대 금1 은1 동2 선전

세한대 유도부가 추계연맹전에서 선전을 펼쳤다.

세한대 유도부는 지난달 27-30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2021년도 추계 전국남여대학유도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남대부 개인전 -66㎏급에 출전한 김찬(3년)은 준결승에서 이지형(청주대)을 말아업어치기로 가볍게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 이민석(위덕대)을 상대로 한팔 업어치기로 우승을 차지했다.

-81㎏급 최승일(1년)은 최낙일(한국체대)와의 결승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골든스코어에서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60㎏급 하정빈(2년)은 4강에서 조환균(경기대)에 한판패로 동메달을 획득했고, 세한대는 무제한 7인조 단체전 준결승에서 청주대에 1대4로 패하며 3위를 차지했다.

노박환 세한대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이 몇 번의 대회를 통해 잃었던 경기력을 되찾은 것 같아 만족스럽다"며 "전국체전를 대비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전국체전 일반부가 취소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우승 상금만 3억원'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내일 개막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회 중 최다 상금을 자랑하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7일 막을 올린다.

7일부터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총상금 15억원 규모로 코리안투어에서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려 있다.

우승 상금만 3억원이라 시즌 막바지 상금왕 타이틀 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특급 대회다.

지난해 김태훈(36)이 이 대회 우승에 힘입어 상금 1위로 도약하면서 시즌 상금왕과 대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도 이 대회를 통해 상금 1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6억3천493만원으로 현재 상금 1위를 달리는 김주형(19)이 미국프로골프(PGA) 2부 콘페리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 출전을 위해 미국으로 가 있어 이번 대회에도 불참, 뒤쫓는 선수들에겐 역전 기회가 왔다.

현재 2~6위인 서요섭(5억1천493만원), 이준석(5억197만원), 박상현(4억4천412만원), 함정우(4억1천439만원), 허인회(4억623만원) 중 우승자가 나오면 단숨에 1위로 올라설 수 있다.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에서도 김주형(4천940.56점)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부문 또한 이번 대회가 경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특히 박상현(4천931.39점)은 턱 밑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해외 투어 대회 출전권만 3장이 주어져 선수들로선 더 욕심이 날 법하다. /연합뉴스